

꽃피는 춘삼월에 ‘눈꽃’…오락가락 날씨에 패션업계 ‘울상’

광주신세계·롯데백화점 광주점 등 봄 시즌 상품 매출 급감
광주·전남 소비심리 34개월째 비관적…미국발 관세 여파도

고물가 등에 따른 장기 경기침체와 겨울과 여름을 오갈 정도의 급격한 기온변화까지 겹치면서 올 봄 시즌 광주·전남지역 백화점과 지역 소매업자 등 ‘패션’ 카테고리 매출이 역진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품, 의류를 비롯한 패션 카테고리가 백화점 업계 매출에서 통상적으로 60%가량에 육박하는 것을 감안하면 전반적인 백화점 매출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이달 21일까지 광주신세계와 롯데백화점 광주점의 패션 카테고리 매출은 전년 대비 3% 이상 줄었다.

지역 백화점들의 패션 매출 저하는 기후변화로 인해 계절 시즌 상품별 경계선이 희미해졌고, 고물가로 인한 지역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지역민들의 소비심리도 위축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광주지방기상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광주·전남 평균기온은 8.6도로 평년(7.3도) 대비 1.3도

높았다. 하지만 일별로 보면 기온이 들쭉날쭉했다. 지난해 광주·전남 평균기온은 14일 기준 14.8도였지만, 꽃샘추위로 인해 16일 4.8도, 18일 1.7도 등 10도 이상 대폭 하락했다. 이 기간 내린 눈으로 광주는 15년만에, 전남은 7년만에 3월에 대설특보가 내려지기도 했다. 이어 21일에는 다시 광주가 28.3도를 기록하는 등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

평균적으로는 지난해보다 따뜻했지만, 급격한 기온 변화로 겨울과 봄 사이 간절기가 사라지면서 소비자들이 새로운 봄 옷 구입 시점을 놓친 것으로 유통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등은 기존 사제철로 구분된 상품 전략을 수정하고 기후에 맞춰 탄력적으로 고객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사라지고 있는 봄 시즌을 대체할 뚜렷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고물가로 인한 지역민들의 소비심리 위축 역시 의류 판매 저하의 주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2025년 3월 광주·전남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3월 중 지역민들의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7.1을 기록했다. CCSI는 장기평균치를 100으로 두고, 높으면 지역민들의 지역 경제 인식이 낙관적임을, 낮으면 비관적임을 뜻한다. 광주·전남 CCSI는 고물가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올 3월까지 34개월 연속 기준치에 미치지 못한 상황이다.

지역민들의 소비가 위축되면서 의류 등 패션업계 자영업자들도 힘들어 하고 있다. 빗가람혁신도시에서 7년째 옷 장사를 하고 있는 한미숙(여·57)씨는 “손님들이 고물가로 인해 먹거리 대신 옷 소비 등을 줄이는 현상이 이미 3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면서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들어온 겨울 옷도 재고가 절반에 달했고, 봄 시즌을 기대했는데 2월 말~3월 간절기에도 매출은 예전 대비 반토막이 났다”고 말했다.

패션 기업들도 매출 저하에다 미국발 관세 여파까지 겹치면서 운영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광주·전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의류 소비는 줄어든 반면,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1등급 한우 저렴하게 드세요” 광주신세계 본관 지하 1층 축산매장에서 고객이 한우 상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오는 27일까지 축산매장에서 ‘한우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행사 기간 중 한우 불고기와 암소한우사태는 각각 42% 할인하고, 1등급 암소한우채끝도 기존 대비 저렴하게 선보인다. <광주신세계 제공>

롯데마트·슈퍼, 이상기후 대응 ‘스마트팜’ 농산물 확대

고수·루꼴라 등 뿌리 허브 채소도
롯데마트·슈퍼는 “스마트팜을 통해 기후 변화에 대응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진> 스마트팜은 정보통신기술(ICT)을 농업에 접목해 시설에서 온도, 습도, 광합성량, 이산화탄소 등을 조절하고 작물의 생육환경을 최적의 상태로 관리하는 농업 방식이다.

롯데마트·슈퍼는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의 품질 저하 및 수급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해 균일한 품질 및 안정적인 공급을 강점으로 지닌 스마트팜 농산물 확대에 나섰다.

그 결과 롯데마트·슈퍼가 지난해 운영한 스마트팜 농산물 품목 수는 30여개로, 2023년 대비 40% 이상 증가했고, 소비자들의 스마트팜 농산물 수요도 2021년부터 매년 두자릿 수 이상 신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롯데마트·슈퍼는 고객 호응에 힘입어 올해 스마



트팜 농산물로 50여개 품목을 선보이고, 운영 물량도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확대할 방침이다. 온도에 민감한 ‘뿌리가 살아있는 채소’ 상품군의 스마트팜 물량도 대폭 확대한다. 올해는 상추, 고수, 바질, 루꼴라 등 다양한 뿌리 허브 채소들을 스마트팜 상품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더불어 스마트팜 방울토마토 역시 전체 물량의 절반가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장윤영 기자 zzang@

파격할인에 기부까지…롯데아울렛 광주수완점, 노스페이스 에디션 행사

5월 7일까지 구매금액별 할인 혜택
롯데아울렛 광주수완점은 “24일부터 5월 7일까지 ‘노스페이스 에디션’ 행사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노스페이스 에디션은 ‘쇼핑과 기부를 한 번에’라는 슬로건으로, 노스페이스의 다양한 상품을 할인 판매하고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 월드비전에 기

부하는 착한 소비 행사의 일종이다. 이번 행사는 노스페이스 에디션 10주년을 맞아 상반기 최대 규모로 행사가 진행된다. 봄·여름 시즌 고객에게 수요가 많은 인기 제품과 등산화, 런닝화 등을 할인하고, 초특가 줄서기 상품도 선보인다. 행사기간 중 롯데아울렛에서만 특가에 판매하는 상품도 마련했다. 대표 상품으로는 ‘시티 힐러 경량자켓’, ‘클래식 반팔 폴로티’, ‘하이마운틴

팬츠’, ‘베티브 익스플로링 등산화’, ‘슈퍼 키스 운동화’가 있다. 구매금액대별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행사기간에 노스페이스 매장에서 20만원 이상 구매시 2만원, 30만원 이상 구매고객에게는 3만원 할인한다. 박운영 롯데아울렛 광주수완점 영업팀장은 “노스페이스 에디션 10주년을 맞아 다양한 상품들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

이마트, 산지 직송 서비스 ‘오더투홈’ 출시

이마트는 24일 일산지 직송 서비스 ‘오더투홈’을 공식 출시한다고 밝혔다. 오더투홈은 소비자가 이마트 앱을 통해 주문한 신선식품을 유통 단계를 최소화하고, 산지에서 집으로 배송해주는 서비스다.

이마트는 최근 20대 이하 젊은 고객들을 중심으로 농산물을 산지에서 직접 배송받는 직거래에 대한 고객들의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신선식품 50여종을 대상으로 해당 오더투홈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

오더투홈 서비스는 한정기간에만 판매할 수 있는 신선상품 배송에서 강점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유통 단계를 대폭 줄이면서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오더투홈은 이마트 오프라인 매장에서 상품을 본 뒤, 매장 내 QR코드 고지물을 통해 해당 상품을 오더투홈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 밖에 고객 편의성 제고를 위해 지난 3월에는 수익 공유 솔루션인 ‘리워드 링크’ 시스템도 도입했다. 리워드 링크는 추천인 보상 시스템으로, 소비자가 이마트 앱에서 판매하는 오더투홈 상품 또는 공동구매 상품의 링크를 주변에 공유한 뒤, 실제 구매가 이뤄지면 추천인에게 결제 금액의 일부를 e머니 형태로 지급한다.

해당 서비스는 이마트 고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더투홈 서비스 신규 오픈 기념으로 24일부터 3주간 ‘e머니 2배 적립 프로모션’도 진행된다. /장윤영 기자 zzang@

유통업도 이젠 AI 시대…산업부, 얼라이언스 발족

정부가 유통 분야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유통 산업 발전을 모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통·AI 얼라이언스 발족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산업부가 이날 발족한 유통·AI 얼라이언스는 유통 기업, AI 기술 기업, 인프라 기업, 벤처캐피탈(VC) 등 40여개 기업·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기술 전담반, 스타트업 육성반, 데이터 활용반

등을 구성해 운영한다. 산업부는 이 얼라이언스를 통해 AI 기술 기업과 유통 기업이 협업해 실제 유통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AI 솔루션을 개발해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유통·물류 분야 AI 전문 스타트업의 창업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유통·AI 얼라이언스를 통해 유통 산업 전반의 AI 활용을 제고에도 나선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광주문화신탁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